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일예배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박재현 이세희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나의 모습보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5:12-42

“생명의 양식(Violin연주)”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 481)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9/2(수)부터 6주간 수요일 저녁 8시에 직분자 훈련이 있습니다. 10월에 임직식을 할 장로, 집사, 권사, 피택자들과 현재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3. 8/30(주일)부터 - 9/2(수)까지 자녀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차유미 전도사)
4.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 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6.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현장예배에서 직접하시거나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2주 전 예배당 건축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이웃집의 담장이 우리 땅으로 1피트 정도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제 자리로 돌려야만 주차장 공사를 허가받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자리하고 있는 이웃의 담장을 뒤로 물리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이웃 세 집의 담장이 우리 땅에 침범해 있었고, 특별히 한 집은 담장을 뒤로 1피트를 반드시 물려야만, 담장과 주차장 공사를 원안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알리고 설명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고,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와 시간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즉시 증보기도팀과 새벽기도회 시간에 알렸고, 부탁할 수 있는 분들에게 모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이지만, 자칫 이 일로 인해 이웃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교회가 지역 사회에 들어가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8/14)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순탄하게 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시대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사회적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고, 일상이 무너짐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이 그 부담을 오롯이 지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고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우리 자신과 모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9,542